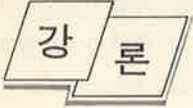


포교사업의 수호자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
 동정 대축일(군일주일)
 제1독서 : 이사 66, 10-14c
 제2독서 : 1고린 7, 25-35
 복 음 : 마태 18, 1-5

순정이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 18,3)



주어진 삶에 최선의 노력을



강명구 신부 / 군종 하상바로 성당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 주어진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행복이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고 이루어짐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 보다 편하고 쉽게, 그리고 적당히 살아가려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쉽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편하게 살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삶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란 결국 무덤으로 들어가기 위해 매일 발버둥치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우리 생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천 년이고 백 년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은 매순간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우리는 라자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우리는 바울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불변하시며 오직 한 분이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빛이시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굳게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고통이 불행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내일의 행복을 보장하는 우리의 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한지를 깨닫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제28회 군인주일입니다.

전·후방에서 자기에서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과 장병들을 위해 사목하고 있는 군종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키려 ‘군’이라는 특수사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소는 어설프지만 ‘군’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살아갑니다. 따뜻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규칙이 적용되는 군대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점점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훈련소에 들어온 많은 젊은이들은 부모님과 가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참 사랑이 무엇이고 참된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참 사랑과 참된 행복을 깨달은 장병들이 참 사랑과 참된 행복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여성대회에 대하여

육 완 태(토마스 아퀴나스)

조선 왕조(朝鮮王朝) 세조(世祖)의 큰 며느리로 소혜 왕후(昭惠王后) 한(韓)씨가 있다.

나중에 인수 대비(仁粹大妃)로 추존되는데, 우리에게 10여년 전, 텔레비전으로 방영됐던 설중매(雪中梅), 그 여인으로 안방에서 더욱 친숙하다.

지중추부사를 지낸 한 확(韓確)의 따님으로 현숙하고 사리판단이 분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청상(靑孀)이 된 후, 두 아들을 잘 키워 둘째 아들이 왕, 성종(成宗)으로 등극한 후 내명부(內命婦)를 소리 없이 다스려 나간 현숙한 여인이었다.

한(韓)씨가 대비(大妃)가 된 후인 성종 6년(1475년) 편찬한 「내훈(內訓)」은 아직도 우리네 여성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5백년이 지난 요즘, 한 때는 베스트 셀러가 되기도 했다.

「내훈(內訓)」의 부부장(夫婦章) 첫머리에 이런 대목이 있다.

“여교(女教)에 이르기를 남녀가 서로 아무리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 꼭 이 대목뿐만 아니지만 그 당시의 여러 문헌과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면 적어도 5백 수십년 전, 조선조 초기까지는 우리나라는 남녀의 평등사상이 상상을 넘을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근 5백년, 우리의 여권(女權)은 이제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과 소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모든 인권에 동등한 참여를 부르짖는 시대가 됐다.

지난 15일 UN 50주년을 기념하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북경(北京)에서 그 막을 내렸다.

여성의 지위향상, 그리고 동등한 참여를 촉구하는 행동강령과 북경(北京) 선언 채택에 1백81개국에서 4만여 명의 여성 지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나온 행동강령의 핵심 요지는 ◇여성에 대한 빈곤의 지속적 부담 가중 ◇교육기회에의 불평등하고 부적당한 접근 ◇보건 및 관련 서비스에 불평등한 접근 등 12가지에 이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빈곤, 교육, 보건, 폭력, 국제적 갈등 상황, 경제권력구조 및 정책결정, 관련기구,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문제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여성인권을 가리키는 종래 가톨릭에서 주장해온 ‘보편적(Universal)’은 여성권리의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의미에서 ‘All human rights(모든 인권)’을 통일시키기도 했다.

다만 이번 대회가 여성의 불공정한 사회참여와 평등에 있어서의 소외받는 여성의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에 기대 이상으로 접근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만의 하나, 노파심이라면 이번 대회가 일부 국가의 여성단체의 대회에 그치고 말지 않았는지, 일부 언론에서 너무 떠들기만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세계의 모든 여성들, 특히 우리 나라 여성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고 그 관심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도 큰 미지수 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 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등을 현실적으로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데는 국제기구 간의 협력, 국가 간의 노력, 국가 내 여러 단체들의 협조 등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가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현실보다 상당히 앞서 가는 개념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정책반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걱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경(北京) 세계대회를 계기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불평등의 해소,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여성들의 역할 분담에 기대하는 바 크다.

숲정이 산책



94년 신자증가율 실적

병영 생활의 하루

- 잃어버린 철모 -



상병 김종필(레오)

오늘도 변함없이 기상 나팔이 울리고 또다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지도 벌써 13개월이나 흘렀다. 정신없이 지내 온 이등병, 일등병 생활은 끝나고 의젓한 상병으로 진급.(짜자잔) 어느덧 나의 위치도 선임병, 후임병 간의 중간 위치이다. 그 동안 많은 훈련과 여러 체험들이 있었지만 작년 10월의 행군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때 소대 막내였다. 신병 훈련을 마치고 차대배치를 받자마자 150km의 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까짓거 누구나 다 완주해 내는 행군인데 내가 왜 못해.” 출발할 때의 결심이었다. 마치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에 나아가는 병사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많은 시간이 흘렀다. 늦더위와 짙은 암흑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쉴틈없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70km 정도 걸어왔을 때였다. 나의 양 발바닥에 물집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걷기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무척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물집은 터지고 다시 생기고 그러기를 여러 번, 넉넉했던 군화도 딱 맞는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비포장 도로를 따라 끝이 보이지 않는 산봉우리로 향했다. 도대체 길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저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어오른 발에는 전혀 감각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큰 나뭇가지가 내 머리를 때렸다. ‘데굴데굴, 데구르르’ 아뽀싸! 철모가 굴러 내려가는 소리였다. 순간 철모를 향하여 몸을 던졌다. 나의 빠른 동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질세라 더욱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

러 내려갔다. ‘오,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앞이 캄캄했다. 나는 나의 부주의함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을 원망하였다. 온몸의 기가 스르르 빠져 나가는 것 같았다. 양쪽 발도 유난히 쭈시고 저렸다. 그때부터 고참들의 눈총이 예사롭지 않았다. 발이 아파 비스듬하게 디디면 ‘왜 똑바로 걷지 못하냐’고 나무랬다. 발에 심한 물집이 잡혀 아프다고 했더니 ‘너만 아프냐’고 하며 소리를 쳤다. 너무나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다.

어느 정도 휴식을 마친 후 마지막 복귀행군을 시작했다. 복귀행군을 하면서 그 동안 행군에 임했던 나의 생각과 행동이 뇌리를 스쳤다. 그저 한심할 따름이었다. 나의 부주의로 주님과 다른 이들을 원망하다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아 정신이 가물가물해 지는 것이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약간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 오는 것 같았다.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나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발거름이 한결 가벼워졌다. 부대로 복귀한 후 짐을 풀고 빨리 샤워하고 싶어 군화를 벗으려는 순간, 군화는 벗겨지지 않았다. 아무리 끈을 풀어 느슨하게 해도 군화는 벗겨지지 않았다. 두 고참의 도움을 받아 겨우 군화를 벗을 수 있었다. 발바닥이 성한 데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때 무지하게 못 살게 굴었던 고참이 “어떻게 그런 발로 여기까지 왔냐? 너는 어떤 훈련도 낙오하지 않고 땀 수 있을거야. 세상에 이런 발로 여기까지……” 그 말을 듣고 무척이나 기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잃어버린 철모였다. 철모를 잃어버렸다는 지휘보고를 받고 행정보급관(인사계)님이 오셔서 “이등병이 이렇게 힘든 훈련을 낙오하지 않고 무사히 복귀했으면 그만이지 철모 잃어버린 게 뭐 그리 문제거리가 되나.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도록”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에 벅차 오르는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 큰 소리로 외쳤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특집 - 전교의 달에

보마교차스에서

안데스 산맥 깊숙이 수많은 이름 없는 산들 속에, 여인의 옆모습처럼 굽이굽이 흐르는 아마존강 상류를 끼고 엮히고 설키는 세상 풍파와는 어느 정도 담을 쌓고 사는 평화로운 동네 보마교차스(Pomacochas)가 있다. 1년 열두 달 항상 푸름의 계절이요, 사계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평균 기온 18도로서 한국 가을 날씨와 별반 다름없는 공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문명의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없는 오지 마을, 지금도 맨발에 허름한 작업복을 걸치고 안장도 없는 말 위에 몸을 맡기고 일터로 향하는 이들을 자주 볼 수 있는 마을이다.

인정 많고 순박한 그들 삶의 중심에 성당이 세워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6년 전의 이야기다. 5백년 전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90% 이상이 천주교 신자인 곳에 굳이 우리 선교사들이 필요했던 것은 교황 바오로 2세의 지적대로 기존 그리스도인들 “재복음화” 내지는 “새로운 복음화”의 필요성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수요가 나날이 늘어가는 실정에 대한 한국 교회의 배려였다.

페루는 태평양을 끼고 북쪽으로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남쪽으로는 칠레, 동쪽으로는 브라질, 볼리비아를 국경으로 하고 있다.

남미에서도 가장 열악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페루, 그 중에서도 제일 힘겹게 사목활동을 해야 하는 차차뿌야스(Chachapoyas) 교구, 전라북도만한 이 교구에는 23개의 본당에 20여명의 사제, 89명의 수녀들이 일하고 있다. 절대적인 사제 수의 부족은 급기야 한국, 멕시코, 폴란드, 영국, 그리고 스페인 신부들을 영입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이 교구에서 활동하는 페루 신부는 단 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북쪽 밀림 지역으로 1,000키로, 남위 6도, 해발 2,300미터(백두산보다 조금 낮은 위치) 성 루가 성인을 주보로 모시는 우리 본당 보마교차스는 400여 가구 신자 2,000명, 공소 20여군데와 아직 공소가 들어서 있지 않는 지역 주민까지 본당 관할 구역 총 인구로 5천명이다. 어느 본당은 120여개의 공소를 가지고 있고 보통 30-50개 공소를 맡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본당은 20여개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공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공소를 잘 관리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글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진흙 땅에 빠지고 수풀을 헤치며 걷기도 하고 때론 조랑말을 타며 방문하는 공소길은 낭만적인 등산길은 아니다.

공소 방문길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나라오는 “영혼에 대한 열정”을 재촉하도록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공소 신자들에게는 여과 없이 비춰지고, 우리 것이 강요되거나 뒤집어 씌워지는 것이 아닌 참된 복음화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걱정이 우리를 더욱 두렵고 어렵게 만든다. 다시 말해 육체적인 고통과 힘겨움은 그런대로 이겨낼 수 있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간,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 동서 관통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퐁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조립식 건축 한국 건설

조립식건물, 일반공사
경량칸막이 콘테이너
김해선(레미지오)
☎ (0652) 75-0161
FAX (0652) 71-6301
휴대폰 011-659-8355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기아 자동차

새차 구입, A/S상담, 중고차 상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억(요셉)
☎ (0652) 87-6301~6
호출기: 015-685-0312

그리스도를



김희태 신부 / 페루 선교사

지만 단지 공식적인 가톨릭 표현 및 사상, 한국인의 사고 방식을 은연중에 그들에게 심어 놓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하루 만에 다녀오는 공소 방문에서부터 2박 3일, 또는 보름 정도의 기간으로 공소 방문을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가난을 택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다. 파견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형제가 되어 그들에게 구세주 그리스도를 가져다 주는 선교사의 영성이 절대적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특별히 그들과 하느님 사랑의 끈, 일치 의 끈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지금도 지속시키는 이들을 이 기회에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인보성체회 수녀님들이다.

우리 신부들은 수녀들을 우리 동네 호적계원이라 부른다. 동네가 작기는 하지만 온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적절한 충고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잡아 주며,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사신다.

수녀들에겐 많은 언어가 필요치 않다. 존재 그 자체로 큰 몫을 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도서관, 젊은 학생에서부터 부인들에게까지 뭔가 생활의 기쁨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양재 교실, 뜨개질, 미혼모를 위한 모임, 레지오 마리아, 복사단, 어린이 성가대 등

마을 공공 차원이나 전례 생활에 있어서서는 안 될 중요한 일들을 돕고 있다.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인간 모습과 인간 활동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신다고 볼 때 인간에게 자기 자신 봉헌과 헌신은 곧 하느님께 대한 봉헌과 사랑인 것이다. 수녀님들은 마을 묘지에 당신 일생을 묻겠다는 삶의 언약을 하고 있기에 뽀야꼬차스의 주민들, 그리스도 구원 역사 안에 함께 있는 그들을 놓칠 수 없다. 그들의 어려움과 피로움에 쉽게 관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철저한 선교사가 되려는 선교 자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교구 여러 신부님들이 우리 본당을 다녀갔고 최근엔 문정현 신부님이 방문하여 선교의 현장을 보고 가셨다. 지구 끝편에서 활동하는 우리 선교사들은 이제 외롭지 않다. 주교님, 교구 신부님들, 전교구민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드릴 뿐이다. 복음 선포를 위해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가 곧 우리를 또다른 작은 선교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지속적인 선교와 전교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자.

요십이 (1152) 김병오



매일 성서 묵상 잡지
아곱의 우물(월간지)
「아곱의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으로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가격: 1,000원 ·1년구독: 10,000원
·연락처: 성바오로서원 ☎252-3398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이삭 모임(성소피정)
·때: 10.15(일) 오전 10시
·곳: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대구 관구 본원
준비물: 미사도구, 필기도구
참가신청: 3,000원
문의: (053)255-8973, 252-5508, 9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개시
(유) 국민렌트카
박 일 천(요한)
신역에서 진안선 중간 럭키아파트 앞
☎본사: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0654) 467-6578~9

성심여자중·고 총동창회
* 96년 성심여중·고 동창 50주년 *
·일시: 10월3일(화) 오전 11시
·장소: 동창회관(분교 내)
·문의: ☎ 86-5783

수의전문
조인국(엘리아)
이정금(모니카)
☎ 231-3003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피정
·때: 10월21일~22일 오후 4시
·장소: 부산 본원 피정의 집
·준비물: 미사도구, 필기도구, 세면도구
·회비: 7,000원
·문의 및 신청: 10월15일까지 (051)514-1773

로사리오 성월을 맞아

로사리오 성월과 신자생활

김교동 신부 / 사목국 부국장

우리가 바치는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사리오 기도는 우리 신자들이 가장 즐겨하는 기도입니다. 로사리오라는 말은 장미 꽃다발이란 뜻으로써 성모송의 묶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각 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성모님의 역할을 본받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여러 칭호와 공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성모님의 삶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모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첫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갓 시골 처녀였던 성모님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는 대답과 함께 시작하였던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성모님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가는 극형에 처해지는 것을 목격하는 쓰라린 고통이 있었지만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충실하게 따르셨습니다.

성모님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 아무런 걱정없이 편하게 사시면서, 항상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손에는 보석 반지를 끼시고 금실로 수놓은 푸른 옷만을 입고 살으셨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모님은 우리처럼 거친 손을 지닌 채로, 평범한 옷을 입으시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아들 예수의 고통을 함께하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으시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신 성모님은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총을 받으셨고 천상의 어머니가 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함께하신 성모님을 모범으로 로사리오 성월을 정하고 기도를 봉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사리오 기도의 각 단을 찬찬히 살펴보면 주님의 구원 신비의 전체를 가리키며 우리 신앙의 핵심을 묵상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로사리오 기도의 묵상은 복음에서 출발하여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로사리



오 기도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깨닫게 하여 자신의 생활을 쇠신하고 신앙의 핵심에 도달케 합니다. 로사리오 기도는 예수님의 강생과, 수난, 부활의 신비를 성모님과 함께 묵상하게 합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는 신자들은 성모님과 같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어 받아 성모님처럼 구원 사업에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사리오 기도가 묵상의 기도라면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기도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로사리오 기도 묵상이야말로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이요 전부로 삼게 해 줍니다. 이 기도의 중요 목적이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그리고 그 안에서 성모님의 협력을 묵상하도록 가르쳐 주는 데 있다면, 예수님 아닌 성모님을 중심으로 하는 로사리오 기도는 잘못된 것이며 그러한 신심은 성모님을 슬프게 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로사리오 기도를 사랑하고 자주 드리는 이유는 성모님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보통의 사람이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자인이었던 성모님, 그러한 성모님을 닮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로사리오를 봉헌 합시다.

가톨릭 교리신학원 동문들에게 알립니다

'가톨릭 교리신학원 40년사(가칭)'를 발간하고 아울러 동문회원 주소록을 제작코자 하오니 동문(수도자 포함) 여러분은 빠짐없이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본교로 보내주시시오.

1. 성명 : 2. 세례명 : 3. 수도명 : 4. 주소 :
 5. 소속 수도회명 : 6. 전화 : ①주택 ②직장 7. 직업 :
 8. 근무처 : 9. 입학과 졸업년도 : ①입학년도 ②졸업년도
 10. 학과명 : ①교리교육과(주간) ②종교교양과(야간)
- 보낼곳 : 110-530 서울 중로구 혜화동 90-12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무과 ☎(02) 747-8501~6 FAX. 741-7986

이전 코아 에스에스 패션

- 로가디스, 이브생로랑, 위크엔드
 - 버킹검, 아스트라, 빌트모아
 - 런던포그, 크레센도, 포앤모아
- 정수천(서문)·강숙기(짓다)
코아백화점 4층
☎86-2884, 80-1404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컨, 향온형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 원종삼(발리바)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교 구 소 식

❖ 천호 피정 안내

- 때 : 10월 5일(목)
- 주제 : 그리스도인의 참 삶은?
- 강사 : 범석규 신부
- 문의 : 73-6600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10월 7일(토) 오후3시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사무장(원) 2차 연수

- 때 : 10월 5일(목) 오전10시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예비 신학생 성지순례

- 때 : 10월 8일(일) 오전9시30분
- 집결지 : 가톨릭센터
- 준비물 : 매일미사, 센성가집
- 회비 : 5,000원(점심제공)

❖ 사회복지 월례미사

- 때 : 10월 2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베소라 성서 피정 안내

- 때 : 10월 17일(화) 오전9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회비 : 5,000원(중식 포함)

❖ 종교음악 연구회 정기교육

- 때 : 10월 2일(월) 오후2시
- 장소 : 가톨릭센터 4층

❖ 휠라라레 모임

- 때 : 10월 1일(일) 오후2시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성모기사회

- 때 : 10월 7일(토) 오전10시
- 장소 : 효자동 성당

❖ 가톨릭 문우회 문학의 밤

- 때 : 11월 6일(월) 오후6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초청강사 : 황 영(한국문인협회장)

❖ 기억할 사제

- 10일 송남호(요셉) 신부 18주기

❖ 축! 영명

- 4일(아씨의) 성프란치스코
- 김기곤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쓰레기를 알뜰하게 버리는 법 -

- ① 세탁할 때는 '조가리 비누'를 현 스타킹에 넣어 세탁기에 돌린다.
- ② 음식찌꺼기는 반드시 물기를 뺀 후 최대한 부피를 줄여 버린다. (마당이 있는 경우는 퇴비로 이용)
- ③ 병을 버릴 때는 반드시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분리한다.
- ④ 대형폐기물은 이사, 집수리 때 한꺼번에 날짜를 맞춰 내놓으면 처리

하기가 수월하다.

- ⑤ 신문 등에 끼어 있는 광고지의 경우 비닐코팅만 되어 있지 않으면 종이류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 ⑥ 과대포장을 자제하여 포장비용과 쓰레기 비용을 함께 줄이자.
- ⑦ 현웃은 모으는 통을 만들어 놓고 찌투리천을 모아 방석을 만들거나 걸래로 사용한다.

남원 성모 안과의원

최신 초음파 백내장 수술,
최신 레이저 수술 기기도입
소절개, 무봉합, 백내장 수술,
자동안압측정기, 자동검안측정기,
안내 초음파검사, 콘택트 렌즈
중앙국민학교 정문 앞
☎ (0671)625-8966~7

이전 개관

태권도

대명체육관

이재선(시메온)
김미정(말가리다)

화산동 중산국민학교 앞
☎ 211-8116

코아 삼익피아노

- 현금가 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각종 신용카드 현금가 할부판매
- 일반악기 전품목 할부판매 및 도소매
- 철저한 책임관리 및 사후 서비스
- ☎ 86-1181, 83-5332
- 호출기 015-670-1651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 서정우 · 이해경(글라다)
-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 253-3232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복종합전시장

박영근(공사가)
장정신(젼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덕신지업사

- 최신 벽지 및 바닥재 엄가판매
- 정밀시공 · 전화문의 환영합니다.
- 원요안(요한)
서문숙(엘리사벳)
- 군산시 죽성동 29-9
- ☎ (0654)42-3736, 445-3736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27주일(군인주일: 2차헌금 있음)입니다.
- ◎ **축!** 영명축일: 법 라파엘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육간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축하식-오늘 공식미사 후
- ◎ **축!** 본당의 날: 오늘 공식미사 후 나눔의 잔치 및 각 반대향 옷놀이 대회가 있음. 많은 참여바람.
- 1. 어린양 잔치: 오늘 율호관
- 2. 특별기도 및 성체강복: 5일 저녁미사 후
- 3. 병자 봉성체: 6일 오전중, 사무실에 신청
- 4. 사목회 상임: 6일 저녁미사 후
- 5. 모임: ①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 정기총회(4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회장 모임(5일, 전 10시30분)
④장우회(8일 공식미사 후)
- 6. **축!** 혼인: 8일 12시
신랑-이주홍(마로로)관, 신부-김현정(세실리아)양
- 7. 금주 청소: 기린방 2, 3반
차주 청소: 중노 13, 15반

□ 지난주 봉헌금: 1,006,610원 □ 교무금: 1,518,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오늘은 군인 주일입니다. 2차헌금이 있습니다.
- 1. 금주 모임: 푸리아-10월1일(일) 후 2시, 장소-강당
사목회-10월3일(화) 후 8시, 장소-회합실
자모회-10월5일(목) 레지오 회합 후, 장소-회합실
- 2. 차주 모임: 프란치스코삼회-10월8일(일) 후 2시, 장소-강당
성심회-10월11일(수) 전 10:30 장소-강당
울뜨레아-10월12일(목) 후 7:30 장소-강당
- 3. 성가 연습: 매주 토요일 10시30분, 장소-성전
성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4. 첫영성체 안내: 10월5일(목) 교리 후 신부님 면담. 10월6일(금) 유아 세례(첫영성체 대상자 중 비세례자 포함) 10월7일(토) 첫영성체식 어린이미사중.
* 첫영성체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5. 어린양 큰 잔치: 일시-10월1일(일) 전 9시30분~후 5시, 장소-율호관, 대상-전주교구 주일학교 어린이, 참가부분-합창, 중창, 장기자랑 *9시에 어린이미사가 있습니다.
- 6. 청소 안내: 금주-정도의 동정녀
차주-사랑하올 어머니

□ 지난주 봉헌금: 971,900원 □ 교무금: 1,005,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 1. **오늘은 군인주일:** 국군 장병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2. 초등부 어린양 잔치: 오늘 오전 10시 율호관
- 3. 신일APT 신자 29세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일1반 반장-황윤진 배로니카(101-301) ☎84-0942
신일2반 반장-허금순 율리안나(103-301) ☎84-3350
신일3반 반장-최난희 루시아 (103-813) ☎85-0292
- 4. 성체 강복: 5일(목) 저녁미사 후
- 5. 성우회, 대건회: 오늘 공식미사 후
- 6.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 7. 구역분과회: 3일(화) 오전 10시
- 8. 울뜨레아: 3일(화) 저녁미사 후
- 9. 자모회: 5일(목) 오전 10시
- 10. 여성분과회: 7일(토) 오전 10시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박남수 부부
봉헌-지혜봉 가족
차주 전례: 해설-황만금, 독서-강주호 부부
봉헌-박남수 가족
- 11. 성당 청소: 7일(토) 김순하신 자의 모후Pr, 셋별Pr.

□ 지난주 봉헌금: 670,700원 □ 교무금: 376,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철

- 1. 금주: ①성가정회(전 11시)
②제속글라라 형제회 정기총회(후 1시30분 강당)
③에빅의 푸리아(후 3시)
④요셉회(후 6시)
⑤울뜨레아(후 8시)
- 2. 어린양 잔치: 10월 1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장소-율호관, 대상-초등부
- 3. 돈보스코 성지순례: 10월1일 오후 7시30분 출발, 장소-천지남
- 4. 배애틀: 4일(전 10시)
- 5. 성체강복 및 조배: 5일(후 3시)
- 6. 성모성심회: 5일(전 10시)
- 7. 병자 봉성체: 6일(후 2시)
- 8. 차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후 2시)
③성심 유치원 운동회-성심학교

□ 지난주 봉헌금: 3,195,97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로사리오(목주)기도를 열심히 바칩시다.
- ◎ 정성된 기도와 봉헌(교무금, 주일헌금)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 ◎ **오늘은 군인주일(연중 26주일)**-군인을 위한 2차헌금과 기도
- 1. 모임: ①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공식미사 후
②안나회-다음 주일 ③사목회-7일(토) 8시
- 2. 감사: ①성전 보수비 신일-양주태, 오철규, 이기봉, 이육동(각 20만원) 박귀철, 남현준(각 10만원) 안복순, 안운기(각 5만원) 송소아(4만원) 김금순(3만원) 계 117만원, 누계 266만원 ②성전 보수비 봉헌-안운기(5만원) 송소아(4만원) 김금순(3만원) 계 12만원, 누계 141만원
- 3. 성지순례: 3일(화) 제천 배론성지
- 4. 기평 꽃동네 방문: 5일(목) 7시 성당 출발, 사무실 신청
- 5. **축!** 혼인: 신랑-이현철(마로로) 신부-김서원
오늘 12시(이기봉 형제 차남)
- 6. 어린양 잔치: 오늘 율호관(주일학교 어린이가 참가)
- 7. 주일학교 어린이 기쁨 소풍: 30일(화) 동불원
- 8. 성당 청소: 금주-셋별Pr.
차주-평화의 모후Pr.
- 9. 금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남현준 ②이석남
봉헌-송정식 가정
차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이육동 ②김금자
봉헌-최원규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41,200원 □ 교무금: 75,000원
차헌금: 154,15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상근

- ◎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마태 18,4)"
- ◎ **오늘은 군인주일 2차헌금:** 전, 후방 장병들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 ◎ 견진성사 받으신 195명의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과 견진 상분 찾아가세요.
- ◎ **본당 울뜨레아 대회:** 3일 전 9시, 윤일암 반일암 미사준비와 회비 10,000원
- 1. 성체강복 및 성시간: 5일 저녁 7시 30분
- 2. 유아 세례: 7일 후 3시(사무실에 미리 신청)
- 3. 구역 방문: 5일 전 9시 추광APT 403동, 404동
6일 전 9시 추광APT 405동, 406동, 407동
- 4. 이발 무료 봉사: 8일 전 9시부터 12시까지, 사무실 뒷편
- 5. 회의: 부녀회-4일 어머니미사 후
천주의 성모Cu.-8일 후 2:30. 성체회-8일 공식미사 후
- 6. 구역 반 회장 연수: 10일 전 10시30분
- 7. 본당의 날과 견진성사 행사에 협조해주신 사목회 임원과 경기진행위원, 그리고 맛있는 떡과 음식을 제공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8. **축!** 혼인: 신랑-조대식 씨의 자녀 조주형(다둥)
신부-박선옥 12:30 평화동 성당

□ 지난주 봉헌금: 2,713,140원 □ 교무금: 1,914,000원